

몸의 지각론에 의한 유희시설의 건축도시 재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rchitecture and Urban Regeneration in Korea through the Perception of Body

Author 형형칠 Hyung, Hyung-Chir / 정희원,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조 한 Joh, Hahn / 정희원,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Abstract First, we can define how our body perceives the external world and embodies its senses through the philosopher Merleau - Ponty. These philosophical orientations of Merleau-Ponty also appear to urban theorists such as Jane Jacobs, Gordon Cullen, and Juhani Pallasmaa. In other words, after the Second World War, people began to pay attention to human emotions and perceptions while opposing human rational thinking. Especially, they reject the abstract space of modernism and explore the everyday city space where the local character of the area lives. This place is a space where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group is shared over several generations. So, in this space, people's active perceptual system works actively. In the sense of this continuity of time, their ideas intersect with the concept of urban. Specifically, Jacobs criticizes massive development and proposes the development of a small block-based city with a commonality of old and new. In addition, we argue that urban space can be a visually interesting object through the continuous visual concept of urban theorist Cullen. In particular, he rediscovers the value of traditional urban space through visual experience between architecture and urban facilities. Finally, the architectural city theorist, Pallasmaa., criticizes the visual centrality of modern cities and thinks about the value of multidisciplinary space that can be experienced in architecture.

This study examines the space of reproduction in detail on the perspective of the body philosophy and urban theorists. In other words, the play space inherits the natural city time, so when our body experiences this play space, we can actively sense and perceive the various senses. So we can invoke the active external actions of our bodi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ize of the reconstruction space of the architectural city, various types of body senses and responses can be. Yoon Dongju Literary Museum, which renovated the old water tank of the city, can recognize the unfamiliar sense of body in everyday life through the traces and smells of water in the past and the restrained visibility. In addition, Seonyudo Park, which regenerates the waste water purification plant, can experience a phenomenal phenomenon through water space, old concrete and traces of steel. Finally, with the most recently played Seoul Road 7017 can experience interesting urban spaces in terms of a variety of plants, a human scale space creating movement, and a continuous visual.

Keywords 건축재생, 도시재생, 지각, 감각, 현상학, 몸의 공간, 체화된 지각, 체화된 공간
Architecture Regeneration, Urban Regeneration, Perception, Sense, Phenomenology Embodied sense, Embodied Spac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늘날 대도시는 대단위 도시개발이라는 모더니즘 건축도시의 이념을 계승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즉 도시건축가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같은 도시이론가들의 이념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단위 주거단지, 쇼핑몰, 업무지구 개발은 도시적인 자본의 욕망을 가장 잘 드러내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다분히 시각적 이미지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이러한 대단위 개발은 인간을 위한 공간과 거리가 멀고, 결국에는 도시의 주인인 인간 자체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인간적이지 못한 도시에 반대하며 나타난 방식이 '도시재생'이다. 이것은 도시가 '급진적 확장'에서 '유지 관리'라는 주목할 만한 도시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같은 초기에 도시화를 진행했던 도시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hyung365@naver.com
** 이 논문은 2014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도시재생은 대단위 개발산업시대의 마감과 함께 버려진 산업유산들은 폐기하기보다는, 역사적 맥락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방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완공한 서울역 고가도로 재생, 세운상가 재생계획,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등 다수의 사례들이 이를 설명한다. 특히 이러한 도시재생은 우리 몸의 여러 감각성을 내포한 도시의 집단적 기억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기도 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대단위 도시개발에서 건축과 도시재생으로 페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의 시점에, 그러한 변화가 어떤 철학적 사유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철학적 변화가 건축도시이론가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인간의 몸이라는 입장에서 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이론의 고찰에 기초하여, 국내에서 완공된 건축과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를 몸의 지각론의 관점에서 확인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건축도시 재생의 지각적인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우선, 몸의 지각성을 사유의 중심에 둔 철학자인 메를로-퐁티(Merleau-Ponty, 1908-1961)를 탐구한다. 즉 그는 『지각의 현상학, 1945년』에서 우리 몸이 세계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철학적으로 사유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는 우리 몸이 인간 이성의 부수적이고 수동적인 일부분이라고 치부했던 근대적 사유를 부정하며, 인간의 몸을 사유의 중심에 배치시킨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생각을 기본으로 이성적인 사유체계보다 몸이 근본이 되는 감각론과 공간론으로 사유를 확장한다. 이러한 성향은 그가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극단적인 인간 이성의 폭력성을 경험하고 나서, 이성에 반하는 감각이나 감성을 주요 화두로 등장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유사하게,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이론 분야에서도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철학적 방향을 같이하는 도시이론가, 도시경관가, 그리고 건축이론가에게도 나타난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전통맥락과 단절된 모더니즘의 사유를 거부하고, 도시의 장소성과 시간성이 살아있는 도시이론을 추구한다. 특히 그들은 일상속의 감각적 기억의 가치를 통해서 온건하고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도시를 제시한다. 이러한 점은 도시재생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좀 더 구체적으로 건축도시이론가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우선, 시민운동가이자 도시이론가인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 1916-2006)는 전후 급진적이고, 대단위 모더니즘의 도시개발에 반대하며, 일상의 삶이 살아있는 소규모 도시개발을 제안한다. 또한, 화가이자 도시이론가

인 고든 컬렌(Gordon Cullen, 1914-1994)은 이전의 모더니즘 도시와 다른 전통도시공간이 가진 시지각적인 가로경관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러한 전통도시가 가진 잠재력을 연구한다. 더 나아가, 가장 최근의 건축도시이론가인 유타니 팔라즈마는 현대건축과 도시의 형태 지향적이고, 시각 중심적인 모더니즘의 도시를 비판하며, 평가절하된 여러 감각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도시이론가들의 지각적 개념을 분석해 나간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는 여러 지각에 대한 생각을 기초하여, 국내의 유희시설을 재생한 공간을 탐구한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 몸이 재생된 공간을 체험할 때, 강한 지각적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즉 우리 몸은 개인과 집단의 기억이 풍부하게 내재된 재생 공간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후각적, 미각적, 다감각적 신호를 읽어내고, 활발한 반응과 행동을 유도한다. 특히 과거 기억의 유산을 가장 개념적으로 잘 적용한 재생사례 중에서 소규모, 중규모 그리고 도시규모 등 세 가지 크기별로 검토한다. 즉 산업시대의 소규모 유희시설인 급수압장을 재생한, ‘운동주문학관’, 한강의 중규모 폐정수장을 재생하여 공원화한, ‘선유도공원’ 그리고 서울역 앞 거대한 고가도로를 재생한, ‘서울로 7017’ 등을 규모별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건축적인 스케일부터 도시적인 스케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2. 메를로-퐁티 몸의 지각론

2.1. 인간의 지각적으로 체화된 몸



<그림 1> 몸과 세계는 지각적으로 지향적 관계 / 몸틀 사례

메를로-퐁티(Merleau-Ponty)는 우리 몸이 일상의 공간을 체험할 때, 우리 몸은 외부 세계와의 적극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새로운 지각과 행동을 몸속에 축적해 나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몸은 메를로-퐁티의 ‘현상의 장(the phenomenal field)’이라는 세계 속에서 한 존재의 몸은 독립적인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몸과 환경은 긴밀한 상호관계 속에 존재한다. 그에 의하면, 우리 몸은 세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존재하며, 그 체험적인 생활공간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주장한다. 즉 우리 몸은 수학적이고 추상적인 공간에 의해서 지각하는 존재가 아닌, 환경이라는 상황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생생하게(lively) 실존적인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메를로-퐁티는 우리 몸이

세계로의-존재(body-to-the-world)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한다. 외부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계속적으로 몸의 틀(body schema)들을 추가하면서 끊임없이 진화해가는 몸틀(body schema)을 형성해간다. 즉 내 몸이 외부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총체적으로 작동하는데, 바로 이것이 몸틀(신체도식)이라는 말한다. 그리고 몸틀은 우리의 의식이전, 비인칭적인(impersonal)¹⁾방식으로 축적한다, 즉 우리 몸은 자신의 과거의 흔적을 대뇌뿐만 아니라 온몸의 신경세포에 정보를 축적해가며, 이를 계속 진화시킨다. 그 전형적인 예로, 자전거 배우기이다. 우리가 어릴 때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배우면, 우리 몸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몸틀’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자전거 타기의 체화된 우리 몸은 이후에 다른 몸의 감각성, 운동성, 지각성과 결합하며 진화된 몸틀을 형성하게 된다.

2.2. 인간의 체험적인 공간론



<그림 2> 몸과 객체는 상호 밀접한 관계 형성

메를로-퐁티는 체험적인 공간론을 주장한다. 체험적인 공간론이란 3차원이라는 수학적이고 추상적인 공간론이 아니라 우리 감각적인 몸이 활동하고 감각하는 몸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그가 말하는 공간이란 공간을 점하고 있는 대상이나 사물들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대상 혹은 사물들이 어떤 상황을 이루고 있음 자체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²⁾그래서 그는 몸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새롭게 정의되는 우리 몸이 주인공이 되는 몸의 공간론을 주장한다. 메를로퐁티는 무엇보다도 위, 아래, 왼쪽, 오른쪽과 공간의 방향, 즉 공간의 순수한 위치가 경험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이미 세계에 주어진 것이거나 지성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인간의 지성 작용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정립된 질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³⁾ 메를로-퐁티는 그 예로 스트래튼(Stratton)의 실험⁴⁾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실험은 이성적인 사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존의 위, 아래, 왼쪽, 오른쪽 같은 순수공간이 절대적

1) 우리 몸이 체험을 통해서 몸속에 축적하는 습관화된 몸의 층위, 체화된 몸의 기억 등으로 몸에 어떤 누구의 인칭적인 관점도 아닌, 중성적으로 축적된 정보의 속성을 의미한다.
 2) Merleau-Ponty,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역, 초판, 문학과 지성사, 서울, 2011, pp.370-449
 3) Merleau-Ponty, op. cit., pp.372-386
 4) 이 실험에서 대상이 거꾸로 보이는(원 상태로 보이는) 안경을 착용하면, 처음에는 도저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지만, 이틀째부터 똑바로 보이기 시작하고,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몸 전체가 바로 서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실험이 끝난 후 안경을 벗으면, 시각적 대상이 뒤집어 보이지는 않지만 어색하게 느껴지고, 특히 왼손을 내야할 때 오른손을 내미는 등 운동적인 반응이 반대로 나타가게 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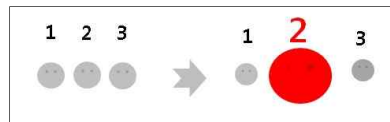
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몸의 세계와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을 제정의 한다. 또한, 베르트하이머(Wertheimer)실험⁵⁾에서, 메를로-퐁티는 거울방은 주변 세계와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 몸이 어떻게 공간을 점유하며, 몸 그 자체에 맞는 공간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메를로-퐁티는 두 사례를 통해서 기존의 공간이 관념적인 기하학적인 질서가 아닌 우리의 몸이 체화되는 형식이자 우리의 지각이 활성화되는 몸에 의해서 제정의 되는 몸의 공간론을 주장한다.

2.3. 인간의 감각과 지각론



<그림 3> 생 빅트와르 산, 세잔, 1892-1896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우리 몸은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감각적인 몸틀을 통해서 변화해간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몸의 각각의 신체 부위에 체화된 몸의 감각론을 주장한다. 특히, 우리 몸은 몸틀, 즉 신체도식이라는 정신적인 작동 메커니즘에 의해서 여러 감각들이 체화되어 있어 자신의 몸과 세계가 관계를 맺을 때 이전의 습관화된 지각방식으로 몸이 먼저 반응한다. 세잔이 회화처럼, 우리 몸의 지각은 애매하고 체화되어 나타난다. 세잔은 이 프로방스의 민둥산을 그리기 위해서 100여장이 넘는 습작을 체화시킨다.



<그림 4> 체화된 대상은 강하게 지각

메를로-퐁티를 연구한 국내 철학자 조광제는 『몸의 세계, 세계의 몸: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대한 강해』에서 이러한 메를로-퐁티 몸틀의 ‘생동적, 선거주적, 지향적, 습관적, 종합적’이라는 감각적 속성으로 해설하고 있다. 조광제의 메를로-퐁티의 지각론 및 감각론⁶⁾을 여섯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결국 그의 지각론

5) 베르트하이머 실험에서는 피험자가 45도로 기울어진 거울의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모든 것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보이고 균형을 잡기가 힘들지만, 몇 분 후에는 모든 것이 바로 보이고 움직임에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진다고 한다.
 6)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이학사, 2004, pp. 266-321 요약 첫째, 메를로-퐁티의 감각은 “운동적인 표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동적인 의미로 감싸여있다”라고 이야기한다. 둘째, 감각은 ‘몸이 먼저 사는 것’이다. 감각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감각적인 것’이 심지어 나의 몸 전체를 취해서 그것이 존재하는 공간을 전율케 하고 가득 채운다. 셋째, 감각은 지향적이다. 미처 의식이 작동하기도 전에 감각하는 몸이 감각 자체의 단계에서 이미 외적인 존재자에 대한 나름의 독특한 정립, 즉, 선 정립을 한다. 넷째, 감각은 “재구성되는 것으로서 감각하는 자의 습관을 전체로 한다.” 이 말은 “그저 자연스럽게 타고난 감각 능력만으로 감각하

은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감각적으로 체화된 몸과 체험적인 공간론의 기반위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 그 중심에는 몸이라는 세계를 지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가 필요하다. 몸을 통한 세계의 지각은 체험적인 공간 속에서 생생하게 감각한다. 또한 모든 감각은 그 지향성을 가지고, 그래서 후천적 습관을 전제한다. 그리고 우리 몸은 체화된 감각성을 축적해가며, 익명성을 내재하며, 감각을 통합한다.

3. 몸의 지각론에 의한 건축도시 재생

3.1. 모더니즘 건축도시의 지각성 결핍과 문제제기



<그림 5> 르 꼬르뷔지에의
브야쟁 계획, 1922

전반적으로 모더니즘 건축과 도시는 인간의 이성적 사유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즉 이성을 가진 인간은 자체적으로 오류를 수정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기본적인 사유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모더니즘의 이성주의는 객관성을 중요시하는 과학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기초에 만들어진 모더니즘의 건축도시들은 기하학이라는 추상적인 체계를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다시 말해 이러한 기하학 체계는 기존의 전통을 소거하고 추상화된 도시의 그리드체계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간구성으로 구축된다. 특히 르 꼬르뷔지에를 포함한 모더니즘 건축과 도시의 계획자들은 기존도시가 가지는 연속되는 시간성을 거부하고, 완전히 새로운 백지 위에서 이성적 사유물인 모듈화 된 그리드체계를 통해서 새로운 오브제들을 대단위로 구축해 나간다. 즉 고층 건축물과 넓은 녹지, 보차분리 이미지 조감도의 시각적 건축도시의 인간의 지배 감각인 시각의 지각체계와 인간 욕망이 결합하여 강력한 시각적 욕망을 몸에 체화(embody)시켜 나간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도시연구가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 1916-2006)는 모더니즘의 도시계획의 기본 전제를 『미국 대도시의 삶과 죽음(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1961)』이라는 도시에 관한 연구서에서 신랄하게 비판한다. 예술이 삶에서 정제된 요소

는 것이 아니라 기나긴 감각의 과정을 거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형성되어 쟁여져 있는 주름을 통한 감각 능력으로 감각한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감각은 익명적이다.” 즉, 감각은 “감각하는 주체가 감각하기로 결단을 내린 뒤에야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감각되고 있고 감각하고 있습니다... 감각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몸은 감각이 공존하는 장이며 종합한다. 몸이 감각의 종합을 만들어내는 증거로 두 눈을 하나의 이미지로 결합하지 못하는 복시증 환자를 예로 들고 있다.

들로 재구성되는 것이라면 도시는 삶 그 자체, 그것도 가장 생동적이며 복합적이고 치열함 삶의 현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⁷⁾ 하지만 모더니즘의 도시들은 기존의 도시적 컨텍스트와 단절을 선언하며, 대단위 개발에 집중한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도시들은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도시의 역사적 시간을 연속시킬 수 있는 장점을 포기한다. 이러한 모더니즘 도시는 고층화, 공간 효율성, 자동차의 적극적 수용, 내부지향적 설계, 과거 단절⁸⁾로 수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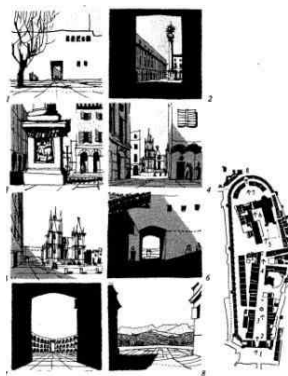
이러한 모더니즘적이며, 급진적인 도시는 사용자들이 공간을 체험할 때 편중된 지각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일상의 도시공간은 더 이상 체험의 대상이 아니라 조각 작품처럼 하나의 오브제를 감상하는 강한 시각적 관점만 존재하게 된다. 건축이론가 유하니 팔라즈마는 이렇게 모더니즘을 비평하고 있다. 모더니즘 표현양식이 표피에 머물러 있는 상황은 모더니즘이 한쪽으로 치우친 지성과 시각적 편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모더니즘의 디자인은 지적 능력과 시각의 능력을 수용하였지만, 시각 이외의 감각과 몸의 지각은 더 이상 머물 곳이 없는 상태로 남겨져 있다.⁹⁾

3.2. 모더니즘 건축도시의 지각성 결핍의 대안

오늘날 건축사에서 모더니즘 도시는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나친 이성주의 입장에서 접근한 나머지, 감정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특성을 평가절하 한다. 모더니즘의 거대 도시개발은 시각중심주의로 과도하게 흐르고, 전통공간이 가진 다양한 감각성을 상실한다. 이에 대한 반발로 고든 컬렌과 유하니 팔라즈마는 전통의 맥락이 살아있는 시각성과 다감각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1) 고든 컬렌의 연속적인 시지각 체형

고든 컬렌은 『도시경관(Townscape, 1961)』이라는 도시연구서를 출판했고, 그 이후 이 책을 좀 더 추가적으로 정리된 『도시경관사전(The Concise Townscape, 1971)』을 출간한다. 컬렌은 건축예술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관계의 예술이 존재하며, 그 안에 건물, 나무, 자연, 물, 교통, 광고 등과 같은 하나의 환경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모든 요소들이 연



<그림 6> Gordon Cullen의
연속적인 장면(Cullen, 1961. p.17)

7) Jane Jacobs, 미국 대도시의 삶과 죽음, 그린비, 2010 p.386

8) Matthew Carmona 외 4인, Ibid., p.130 요약

9) Juhani Pallasmaa, 김훈 역, 건축과 감각, 시공문화사, 2013 pp.30-3

극이 베풀어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서로 어우러져 짜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¹⁰⁾

그의 도시경관 이론은 시각(Optics)적 연속성과 장소(Place)와의 관계, 그리고 도시적 내용(Contents) 등의 각 세 부분으로 분류한다. 우선, 첫 번째 시각(Optics)적 연속성은 왼쪽 그림처럼, 바로 지금 우리 앞에 ‘현존하는 장면’과 앞으로 ‘출현하는 장면’이 시각적으로 연속적인 시야(serial vision)를 형성하거나, 혹은 장면과 장면이 상호 대조와 병치를 이루며 도시적인 장면의 활력을 갖는다고 이야기한다. 두 번째, 장소(Place)¹¹⁾의 관계는 도시공간의 경험자가 위치의 시점에 따라 시지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과 관련된다. 특히 위치감각은 환경에 대한 본능적이며 지속적인 감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지각하는 것이나 환경에 조화되는 것은 길거리에서나 광장에 있는 사람이 그 속에 있거나 들어섰다가, 그것을 떠난다는 느낌에서 기인한다. 도시경관의 가장 큰 현상은 두 가지 사이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창출되어진다. 세째로, 도시적 내용(contents)¹²⁾은 “도시공간에서 색채,

질감, 규모, 특성, 개성 및 유일성에 관한 연구이다. 즉 대부분의 도시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독특한 건축양식을 갖고 있으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도시들은 재료, 규모, 형태적 측면에서 시대적으로 혼합된 양상을 띠고 있다.¹³⁾ 즉 도시의 경험은 시각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몸의 기억과 공간적 체험, 심리적 감정을 동시에 동반한다. 역사도시들은 오래된 역사를 간직하면서, 건축양식, 건축재료, 건축디테일 등이 시간적으로 섞이게 된다. 켈렌은 이러한 혼합적인 양상을 섬세하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켈렌의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시간에 의해서 형성된 대칭, 균형 같은 조화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완벽한 조화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점은 모더니즘 건축이 가진 인위적인 비례나 추상화된 조형성을 거부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이러한 모더니즘의 인위적인 조화에 의문을 제기하며 서로 차이를 인정했을 때 도시는 훨씬 활력이 있는 공간을 형성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도시설계, 여섯 차원의 장소 만들기 (Public Places-Urban Spaces: the Dimensions of Urban Design, 2003)』을 저술한 매튜 카보나(Matthew Carmona)와 공동저자들은 켈렌의 이렇게 비평한다. 켈렌의 도시경관기법은 도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하나 ‘설계방법론’으로 사용하기 어려움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지나친 시각적인 지각체계만을 강조하는 것은 협소한 관점에 머물러 있음을 비판한다. 그는 모더니즘의 도시를 비판하고 전통도시의 체험적 가치를 재발견함에도 불구하고 시각적 체험에 치중된 특징을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켈렌의 시각지향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감각성을 사유에 중심에 둔 그 다음 세대 건축이론가인 유하니 팔라즈마를 탐구한다.

(2) 건축도시 이론가 팔라즈마 다감각적 대안

1) 모더니즘 건축의 시각중심주의 문제제기 비판

건축도시이론가 유하니 팔라즈마(Juhan Pallasmaa)는 공간의 현상학적 관심을 사유의 바탕에 놓고 건축과 도시에 관한 작업을 수행한다. 특히 철학적, 미학적, 심리학적 관점 위에 건축과 감각의 상호관계를 서술한 『건축과 감각(the eyes of the skin, 2012)』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지각에 관한 연구서로 인정된다. 이 연구서에서 그는 모더니즘도시가 극단적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대량생산 시스템으로 생산된 건축 재료를 기반으로 대단위 도시개발을 수행하면서, 도시 공간이 시각이라는 감각체계에서 편중되고 있는 점을 비판한다. 그는 이러한 점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모더니즘의

10) 박익철, 윤성원, 도시경관의 조형해석과 디자이너의 직관 개입에 관한 기초 연구_고든켈렌의 이론을 중심으로, 2013, p.4

11) Gordon Cullen, op. cit., pp.21-56

① 점유possession

점유영역(occupied territory), 유동적인 점유영역(possession in movement), 우월(advantage), 점성공간(viscosity), 고립된 영역(enclaves), 위요(enclosure), 조점(focal point), 경내(precincts), 옥내경관과 옥외의 방(indoor landscape and outdoor room), 옥외의 방과 위요공간(the outdoor room and enclosure), 복합의 위요공간(multiple enclosure), 블록주택(block house), 허상의 공간(insubstantial space), 분명한 공간(defining space), 위요공간으로부터의 전망(looking out of enclosure), 저곳(thereness)

② 여기와 저기(here and there)

위요공간으로 향한 공간(looking into enclosure), 조준(pinpointing), 단절(truncation), 레벨의 변화(change of level), 그물(netting), 영상(silhouette), 장대한 전경(grandiose vista), 공간의 분할(division of space), 구분된 전경(screened vista), 매력적인 모습(handsome gesture), 폐쇄전경(closed vista), 구부러짐(deflection), 돌출과 후퇴(projection and recession), 부대시설물(incident), 강조의 지점(punctuation), 골목길(narrows), 변화 있는 공간(fluctuation), 파동효과(undulation), 폐쇄효과(closure), 후퇴효과(recession), 기대효과(anticipation), 무한성(infinity), 신비(mystery), 심연(the maw)

③ 연결과 합류-노면(linking and joining: the floor)

보행자 도로(pedestrian ways), 연속성(continuity), 장애지대(hazards)

12) Gordon Cullen, op. cit., pp.57-86

① 범주(the categories)

범주별 경관(the categorical landscape), 병치기법(juxtaposition), 직관성(immediacy)

② 개별성의 특성(thisness)

디테일한 관찰(seeing in detail), 신비로운 도시(secret town), 세련미(urbanity), 복잡성(intricacy), 타당성(propriety), 둔감함과 당돌함(bluntness and vigour), 혼란(entanglement), 향수(nostalgia), 하얀 공간(the white peacock), 개방감(exposure), 친밀감(intimacy), 착시(illusion), 은유(metaphor), 암시효과(thetell-tale), 연상(animism), 과감한 생략(noticeable absence), 두드러진 시설물(significant objects), 조각적인 건축물(building as sculpture), 기하학적 형태(geometry), 복합용도multipleuse)

③ 돋보이게 하는 것(foils)

연관성(relationship), 규모(scale), 평면상의 규모(scale on plan), 왜곡(distortion), 수목의 조화(trees incorporated), 필적(calligraphy), 광고(publicity), 자연스러운 처리(taming with tact)

13) Gordon Cullen, Ibid., p.11

디자인은 지적 능력과 시각의 능력을 수용하였지만, 시각 이외의 감각과 몸의 감각은 더 이상 머물 곳이 없는 상태로 남겨져 있다.¹⁴⁾

한편, 오늘날 동시대 문화는 모더니즘의 연장선상에서 과도한 시각적 이미지의 특성을 이어받고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 경계체계와 결합한 디지털화, 세계화, 대량소비 등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매개로한 시각방식은 더욱더 가속화 된다. 팔라즈마는 우리의 문화가 시각적 감각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편향적 로고스 중심적 사유가 시각적 이미지와 체화된 지식을 지배.¹⁵⁾받고 있음을 비평하고 있다.

한편, 모더니즘의 도시건축의 시각성은 현대건축에 투영되어 자의식이 강한 건축가들을 양산한다. 그래서 그들의 건축은 도시와 함께 존재하기 보다는 보다는 스스로를 소외시킨다. 이러한 허무주의적 시선은 문화를 구성하는 체제는 재구축되지 않는다. 그것은 집합적 의미를 잃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때, 세계는 쾌락주의적인 것으로 결국 의미 없는 시각적 여정이 되어 버린다.¹⁶⁾ 결국에는 도시가 지닌 집단적 의식보다는 개인의 의식, 개인의 자의식을 발현하는 쪽으로 나타난다.

2) 다감각적인 도시공간

인간의 감각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감각기관은 서로 협동해서 외부정보를 최대한 정밀하게 파악하려 한다. 사람의 감각은 결코 단독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 그것들은 상호작용하며, 서로 뒤섞이며, 가끔은 서로 모순되기도 한다.¹⁷⁾ 더욱이 우리 주변 환경 속에서 미적 감각이 작동하는 도시공간에서는 외부정보와 내부의 장기기억으로 저장된 기억,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추상적인 능력인 상상력이 가미되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건축이론가 폰마이스(Pierre von meiss)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주변 환경에 관한 미적체험은 총체적이다. 그리고 촉각, 후각, 청각이 매우 강력하여, 시각보다는 더 중요한 상황도 있기는 하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절대 이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공간의 울림이나 재료에서 발산되는 향기들, 그것이 유발하는 감촉경험들을 상상하려 애쓰자.¹⁸⁾ 다시 말해 건축물이나 도시공간 안에서 우리 몸을 움직여서 어떤 대상을 능동적으로 경험할 때는 모든 감각기관이 서로 무의식적으로 협력한다는 의미이다. 팔라즈마에 의하면, 건축에서 모든 종류의 만지는 경험은 여러 감각이 관여하며, 공간, 물질, 스케일의 질적인 측면은 눈, 귀, 코, 피부, 혀, 뼈와 근육을 통해 동시에

여러 감각으로 가늠되어짐¹⁹⁾을 주장한다. 이러한 감각의 협력관계는 다감각적인 대상을 지각할 때 강하게 체화된다. 뇌는 어떤 하나의 외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대뇌의 연합피질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정확한 정보를 해석해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와 이전에 각 연합영역에 저장된 기억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각은 가장 우월한 감각이지만, 촉각, 청각, 후각, 미각, 운동감각, 기억, 상상력 등과 협력한다. 시각은 우리가 촉각을 통해 진즉에 알고 있던 것을 드러낸다. 우리는 촉각을 시각의 무의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의 눈은 먼 거리에 있는 표면과 윤곽, 모서리를 쓰다듬는다.²⁰⁾ 청각은 시각이나, 상상력과 협력해서 환경을 인식한다, 소리는 공간을 가늠하고 그 스케일을 쓰다듬는다. 그 도시의 패턴과 스케일, 그리고 주도적인 건축스타일과 재료에 따라 반사된 소리의 차이가 난다.²¹⁾ 후각은 미각과 기억감각과 협력한다. 푸르스트(Marcel Proust)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처럼 주인공의 한 입 베어 문 마들렌은 주인공을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있는 따뜻한 추억의 공간으로 순식간에 시간이 동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도시공간에서 우리 몸은 여러 감각을 지각하면서 공간을 이해한다. 즉 다양한 감각 공간은 좋은 도시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4. 몸의 지각론에 의한 건축도시 재생 사례 분석

도시재생을 먼저 수행했던 유럽이나 미국처럼, 서울의 도시화는 유사한 발전 및 쇠퇴의 과정을 겪는다. 우리 도시개발은 70년대 산업시대와 개발시대를 거쳐,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집중한다. 하지만 신도시개발과 산업시스템의 변화로, 원도심이 공동화되며, 다수의 유휴시설들이 발생한다. 최근에 이러한 쇠락한 원도심과 유휴시설의 가치를 새롭게 재인식하고 활발하게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도시재생 활성화 단계(도입기: 2015-2017, 성숙기: 2018-2020, 정착기: 2021-2025)²²⁾ 로드맵을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실천 중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²³⁾을 진행 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유휴시설들이 차지하는 범위는 상당하다. 도시재생학자 김정후는 최근 저서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에서 ‘다시 쓰는

14) Juhani Pallasmaa, op. cit., pp.30-31

15) Juhani Pallasmaa, The embodied image, 2011, p.11

16) Juhani Pallasmaa, Ibid., p.36

17) Pierre von meiss, 형태로부터 장소로, 2000, pp.27-28

18) Pierre von meiss, op. cit., p.27

19) Juhani Pallasmaa, Ibid., p.62

20) Juhani Pallasmaa, Ibid., pp.63-64

21) Juhani Pallasmaa Ibid., p.75

22)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2015, p.90

23) 문재인대통령 공약집, 2017, p.109

것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산업유산의 가치는 경제적인 측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소성, 역사성 그리고 친환경성이다.²⁴⁾ 이들 중에서 장소성과 역사성은 이 논문의 연구 주제인 몸의 지각적 체험과 맞닿아 있다.

4.1. 지하펌프장을 재생한 운동주문학관

건축가 이소진은 부암동 언덕에 버려진 가압창고와 물탱크를 운동주 시인을 위한 문학관으로 재생하였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작업할 때, 건축과 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하며, '장소의 풍경'을 반영한 공간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사실은 운동주문학관에 관한 이소진과의 인터뷰에서 잘 알 수 있다. 가압장이 건축적으로는 별 거 없는 건물이지만 한자리에 40년간 있었잖아요. 이 동네를 오가는 사람들한테는 늘 무의식중에 자리를 지키던 건물이지요. 그 풍경을 유지하는 게 저한테는 중요했어요.²⁵⁾ 이러한 장소지향적인 이소진의 공간은 지각성이 풍부한 공간을 중시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생각이 이 건축가의 몸에 자리 잡게 된 이유는 프랑스에서의 실무프로젝트로 전통도시를 설계하고 유지관리하면서 체화된 습성임을 저자와의 2015년 인터뷰²⁶⁾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

(1) 파사드의 시각성과 촉각성



<그림 7> 운동주 문학관 파사드

운동주 문학관에 들어서기 전에 우리 몸의 지각은 압밀한 지반위에 시지각적으로 "순백"²⁷⁾의 건축 오브제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하부는 인조석 쌓기를 통해 상부 흰색과 대조적인 하부 지반형태와 유사한 돌의 촉감을 느낄 수 있다. 즉 입면에서 상부의 흰색 페인트와 하부 층의 검은색 석재가 대비를 이루며, 건축물 파사드의 시각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또한 출입구 우측에는 운동주 시인의 시와 자화상이 두꺼운 철판 위에 촉감적으로 새겨져 있어 순백의 입면과 상대적인 대비를 이룬다.

(2) 차갑고 묵직한 철문의 촉감



<그림 8> 제 2 전시장 검은 철문

실내 전시장을 둘러 볼 때는 모던한 전시공간에서 촉감적인 전시물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한편에 제 2 전시장으로 통하는 검은색 철문이 시각적으로 강하게

감각된다. 모던한 제1전시장과 다른 순간적인 몸의 전이가 발생한다. 그 철문에 손을 대는 순간 차갑고 묵직한 금속촉감이 신체의 피부를 자극하고 이것은 대뇌를 자극하여 과거의 운동주의 고통 받는 기억을 소환한다. 차갑고, 무거운 문의 감각은 운동주 시인의 냉혹한 그 당시 감각과 교차하며 신체내부에서 상호교환하고, 이 장소를 극적으로 자극하게 한다. 건축가 이소진은 문학관의 방문자들에게 "발견의 감각"²⁸⁾을 주기 위해 디자인했다고 인터뷰했다. 즉 이러한 신체적인 행위를 통해, 우리 지각은 오래된 표면의 제 2전시장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운동주시인이 투옥된 상상의 감옥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인 운동주는 더 이상 외부존재가 아니고 지각체험을 통해서 내 몸과 강하게 교감하게 된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오귀스트 로댕에 관한 글에서 손의 독특한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손의 본질은 결코 쥐어 잡는 능력을 가진 기관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거나 설명될 수 없다. 손의 모든 동작은 생각의 요소로 작동하며, 손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손이 생각의 요소로 품고 있는 것이다.²⁹⁾ 이처럼, 운동주 문학관 철문은 촉감적으로 우리 몸을 강하게 자극하며, 운동주의 고통을 직간접적으로 느끼게 한다.

(3) 감각적인 물성의 상대적 위요공간



<그림 9> 제 2전시장

제 2 전시장에 들어서면 옛 콘크리트 물탱크의 표면위에 물의 흔적, 나무 그림자, 푸른 하늘 등과 연계된 하나의 시각적 파노라마를 형성한다. 즉 극단적으로 모던한 제1전시공간에서 거친 표현의 아우라(aura)를 가진 현상적 공간으로 전이한다. 공간은 물리적인 벽에 의해서 위요공간(enclosure)³⁰⁾을 형성하면서 시각적 편안함을 형성한다. 이 공간에서 우리 몸은 눈으로 콘크리트 거친 고색의 표면을 지각하면서, 촉감적으로 그 표면을 눈으로 만진다. 여기에 청각적인 요소로는 바람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공간 내부로 메아리친다. 또한 물의 얼룩과 바닥 쇠석하부에서 축축한 흙냄새가 과거에 이곳이 습한 탱크임을 직접적으로 체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 건축가 폰마이스는 인상적인 후각이 우리 몸에 오래도록 지속된다고 주장한다. 즉 냄새는 정원의 향긋한 내음, 나무 냄새, 콘크리트 냄새, 음식냄새, 그늘음 냄새, 다락방의 건조함, 먼지, 피라네시의 판화에서 볼 수 있는 그 지하실의 음침한 냄새, 냄새는 인생에 있어 장소와 순간을 나타낸다.³¹⁾ 결국 감각을 통

24) 김정후,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 돌베개, 2013, p.16

25) 중앙일보 매거진M 인터뷰, 2016.2

26) 2015년 홍익대 아키텍처 이소진 특강 후 인터뷰

27) 중앙일보 매거진M 인터뷰, 2016.2

28) 중앙일보 매거진M 인터뷰, 2016.2

29) Juhani Pallasmaa Ibid., p.84

30) Gordon Cullen, op. cit., p.36

31) Pierre von meiss, Ibid., p.27

해 촉발된 신체의 감정은 물 흔적의 점진적인 층들에 의해서 집단의 역사적인 기억을 연쇄적으로 소환하며, 우리 몸은 거대한 도시적인 시간성을 지각하고 강하게 체화한다. 우리 몸이 이러한 과거의 기억을 감각할 때는 우리 스스로의 존재성을 확인하게 된다. 내 몸이 살아있는 것은 감각되는 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4) 절제된 시각과 다감각성



<그림 10> 제 3전시장

건축이론가 조한은 제 3 전시실을 오래된 물 냄새 속에서 느껴지는 후각의 시간, 벽에 투영된 이미지로 보는 역사의 시간, 운동주의 글에서 느껴지는 시의 시간, 그리고 공간 전체의 울림에서 느껴지는 청각의 시간³²⁾ 이라고 설명한다. 제 3전시실에 차가운 검은 철문을 진입하는 순간, 칠흑같이 어두운 공간 안에서 시각적인 감각은 약화되고 다른 감각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억제된 시각 뒤로 후각과 미각, 그리고 청각, 촉각들이 총체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즉 기존에 제 2전시실에서의 시간은 최소화되고 다른 감각들로 갑자기 전이되면서 다른 감각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럴 때 폐쇄된 습한 물탱크의 냄새는 강력하게 지각된다. 이러한 속성에 대해 유하니 팔라즈마는 압도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거리를 두는 감각인 시각을 차단하는 경향과 꿈꿀 때나 음악을 들을 때, 혹은 연인을 애무할 때, 눈을 감는 현상³³⁾과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지각심리학적으로 우리 몸은 이러한 습한 냄새의 청체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 감각기관은 뇌에 저장된 기존 냄새와 비교를 통해서 분석한다. 건축이론가 폰 마이스 또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한다. 어린 시절 할머니 집에서 맡은 냄새는 아마도 우리들의 뇌리 속에 뿌리 박혀 있어서 20년 후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냄새를 다시 맡았을 때, 놀랄 만큼 자세하게 그 집의 이미지들을 되살릴 수 있다.³⁴⁾ 결국 우리 몸의 시각기관은 세계를 지각하는 주요수단이지만, 이 감각기관이 제한적으로 작동할 때는 다른 기관이 작동하며, 이 작동된 기억은 오랫동안 강하게 지속된다.

4.2. 정수장을 재생한 선유도공원

선유도 공원은 도시건축가 조성룡과 조경건축가 정영선이 협업하여 한강변 폐쇄된 정수장을 재생한 도시공원이다. 특히 조성룡은 ‘혼용의 풍경’이라는 개념으로 건축과 도시를 바라본다. 즉 ‘광경’이 단순히 시각과 관계를

가진다면, ‘풍경’은 몸의 운동에 의한 여러 감각적 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또한 광주 무등산의 의재미술관에 관한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점을 이야기한다. “시간의 흔적과 함께 소리, 빛, 물소리, 바람소리, 숲과 땅이 결부되도록 지었지요. 결국은 ‘관계’입니다.”³⁵⁾ 또한 조경건축가 정영선은 주변 대지를 ‘기억의 장소성’과 ‘생태적 환경’³⁶⁾을 조경의 주요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과거 정수장의 장소적 역할을 반영하여 녹슬고 허름한 정수시설을 다시 재사용하면서도, 정수장과 대비되는 자연으로 회기하는 선유도의 생태성을 강조하고 있다.

(1) 미각과 후각이 연합하는 수질정화원

양화대교 쪽 정문에서 진입하면, 우리는 수질 정화원을 거닐게 된다. 기존의 정수시설 웅벽의 흔적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여기에 수생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축축한 촉각적인 진흙들이 깔려있다. 또한 콘크리트 틈 사이로 팔팔 흐르는 물소리와 구멍으로 푹푹 떨어지는 물소리는 청각을 자극하며, 진흙과 정화되는 물 그리고 풀은 후각과 미각을 자극한다. 이러한 환경적 경험은 시각 중심주의에 가려져 있던 다른 감각들을 새롭게 인지하고 복합적인 상호관계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이와 유사하게 건축가 조한은 수질정화원을 감각적으로 설명한다. 건축가 조한은 “물 위에 떠 있는 나무 데크를 걸으니, 한발 한발 느껴지는 나무의 울림과 물비린내, 그리고 졸졸거리는 물소리가 나를 어느 기억 속의 물가로 옮겨 놓은 듯.”³⁷⁾하다고 몸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다감각적 경험은 우리 몸의 활기를 깨우는 역할을 한다. 팔라즈마가 그의 저서에서 숲 속 산책이 기운을 나게 하고 치료효과도 있는 이유는 모든 감각 양상이 끊임없이 상호작용³⁸⁾하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수질정화원의 공간은 시각적 체험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후각과 미각과 서로 협력하며 인상적인 몸의 체험을 만들어 낸다.

(2) 시각과 촉각이 연합하는 환경물 놀이터

공원의 수질 정화원과 경계가 되는 포장된 도로를 지나 환경물 놀이터로 접근했을 때 작은 여러 물성에 의해서 시촉각적 감각을 경험하게 된다. 즉 전체적인 부드러운 곡면의 계곡, 바닥석재 요철부, 그리고 매끄러운 조경석은 눈으로 만져지는 감각, 즉 시각은 촉



<그림 11> 촉각적인 환경물놀이터

32) 조 한, 공간의 기억 기억의 공간, 돌베개, 2013, p.247
 33) Juhani Pallasmaa, op. cit., p.68
 34) Pierre von meiss, op. cit., p.27

35) 의재미술관 인터뷰, 2003
 36) 성중상, 선유도 공원: 다시 우리 곁으로 온 섬, 선유도, 환경과 조경 통권 제 170호, p.52 요약
 37) 조 한, op. cit., p.261
 38) Juhani Pallasmaa Ibid, p.61

각과 결합하여 대상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촉각으로부터 분리된 시각은 거리, 외부성, 공간의 깊이를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간이나 대상을 이해하는 것도 약화된다. 시각은 우리가 체화된 이전의 촉각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지각한다. 팔라즈마는 촉각을 시각의 무의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우리 눈은 먼 거리에 있는 표면과 윤곽, 모서리를 쓰다듬을 수 있다.³⁹⁾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 몸은 무의식적으로 촉각을 경험을 통해 그 경험이 우리 몸에 기분 좋은 것인지 불편한 것인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시각을 통해서 모든 감각을 지각할 수 있다. 즉 눈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그것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몸이나 뇌에 이미 저장된 체화된 감각들이기 때문이다. 여러 감각이 존재하는 환경물 놀이터에서 우리 몸의 시각은 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감각들과 연합하여 강한 몸의 경험을 축적한다.

(3) 촉각과 균형 감각이 연합하는 녹색기둥 정원



<그림 12> 녹색기둥 정원

디자인 갤러리를 지나 녹색기둥의 정원 입구에 도달하면 램프로 천천히 진입하게 된다. 이 순간 우리는 물속으로 천천히 들어가면서 숨이 막힐 듯이 긴장하게 된다. 왜냐하면 기둥의 물때를 볼 때 이곳은 물속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우리는 과거의 물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다. 신체는 이를 후각적, 미각적,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한다. 손바닥, 이마의 피부감각에는 순간적으로 긴장감의 온기가 느껴진다. 그리고 이 정원은 둥글고 조그마한 자갈이 깔려 있는데 이를 발바닥이 느끼기도 전에 신체의 전체 신경계에서 느끼게 한다. 돌을 바닥으로 감각하는 순간 신체는 균형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바짝 긴장을 하고 둥근 조경석을 발바닥의 미세한 촉각적 감각으로 만지면서 적응해 간다.

(4) 후각과 상상력의 시간의정원



<그림 13> 시간의 정원

시간의 정원은 습한 지하 공간으로 인한 축축한 이끼나 식재는 우리 신체를 묘한 감각체험으로 인도한다. 머리 위쪽 상부의 옛 수도 중간에 물때를 볼 때 정화된 물이 시간의 정원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상상력을 자극한다. 게다가 이 장소는 오랫동안 물이 있었던 공간에 식재들이 자라하고 있어 묘한 느낌

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어디선가 바닷가 고유의 독특한 냄새를 풍기면서 과거의 기억을 순식간에 소환한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냄새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망막에 의존한 기억으로는 완전히 잊고 있었던 공간에 다시 진입하게 된다. 팔라즈마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코 속의 빈 공간은 잊고 있던 이미지를 일깨우고, 우리가 선명한 백일몽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이끈다. 코는 눈이 기억할 수 있게 한다.⁴⁰⁾ 이처럼 후각은 우리 지각이 흥미로운 상상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자신은 이 공간에서 우리 몸은 공원이라는 작은 다감각적 세계의 조우를 지각하며 새로운 존재, 즉 환경과 몸이 하나가 되는 ‘물아의 일치’의 순간을 경험한다. 이러한 감각적 체험은 저가 과거에 소쇄원의 광풍각 정자에 누워서 주변의 모든 감각들을 내 몸으로 가져오고 우리 자신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흡수시켜 새로운 존재를 생성하게 한다. 그곳의 공감각적 특성은 우리 자신을 완전히 자연의 일부로 만든다.

4.3. 고가도로를 재생한 ‘서울로 7017’

네델란드 조경건축가인 위니마스는 건축과 조경 그리고 도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디자인을 추구한다. 서울로 7017 프로젝트에서도 여러 식생의 데이터분석을 기초로 수목원 개념을 보행공간에 적용하여, 여러 감각적인 체험이 가능한 공공공간을 계획한다. 또한 그는 “개발시대의 콘크리트의 물성”⁴¹⁾을 재해석하여 콘크리트의 원통디자인을 추출하고 옛것과 새로운 것의 새로운 상호관계를 통해 도시재생의 의미를 강하게 드러낸다.

(1) 감각적으로 작동하는 다양한 식재들



<그림 14> 시기별로 작동하는 다양한 식재들의 감각적인 변화

도시계획가 제프 스펙(Jeff Speck)은 그의 최근 연구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walkable city)』에서 도시에서 나무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나무는 그늘을 제공하고, 주변 온도를 낮추며, 빗물과 배기가스를 흡수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바람이 끼치는 영향을 조절한다. 나무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게 하고, 뺏어나온 가지로 거리를 감싸 안락한 느낌을 준다. 또한 일정한 간격으로 심은 나무는 위커빌리티에 많은 도움이 된다.⁴²⁾ 이처럼 가로와 공원 수목은 인공적인 도시공간

40) Juhani Pallasmaa op. cit., p.80

41) 조경건축가 위니마스는 준공 후 인터뷰에서 개발시대 콘크리트의 물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말은 역사적인 콘크리트 구조와 보행로 바닥 및 원통형 콘크리트가 물성적으로 서로 관련성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9) Juhani Pallasmaa Ibid., p.63

에서 간접적인 자연을 감각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방법이다. 유사하게 공중정원이나 수목원을 표방하고 있는 ‘서울로 7017’은 가로수목이 가진 가로 특징과 수목원이 가진 공원의 특징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한 가지 수목을 선택하는 가로수 경관의 단점을 넘어 수목원처럼 계절별로 다양한 수목들(원형 화분 총 66Type, 645종)을 경험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다양성은 시각적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감각적으로 풍부하며 흥미로운 가로의 공간의 재생을 만들어 낸다. 팔라즈마는 숲속 산책이 기운을 나게 하고 치료효과도 있는 이유는 모든 감각 양상이 끊임없이 상호작용⁴³⁾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자연은 우리 몸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감각대상 중에 하나이다. 거기에 수목의 다양성은 공간을 체험하는 대상으로도 더욱더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재생된 공원은 이전에 도시의 보행자들이 수목을 통해서 도시공간의 단편적인 감각체계를 다양하게 확장시켜준다.

(2) 친밀한 인간적 스케일 거리경관



<그림 15> 골목길 같은 휴먼스케일 가로거리

문화심리학자 에드워드 홀(Edward T. Hall, 1914 - 2009)은 그의 저서 『숨겨진 차원』에서 근접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0.45-1.2미터를 개인적으로 ‘친밀한 접촉 거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2-3.7미터는 ‘사회적 거리’로 일 휴가에 대한 기억이나 기타 일상적인 정보에 대한 대화가 교환될 수 있는 거리로 설명한다. 이 거리는 대화를 위한 적절한 형태의 물리적인 거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에드워드 홀의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서울로 7017의 공간적 스케일은 사교적으로 원활하게 의사소통 가능한 사회적 거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 협소한 크기의 폭은 보행자들의 몸이 서로 근접하게 되며 흥미로운 사회공간을 만들어 낸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건축가 얀겔(Jan Gehl)은 『사람을 위한 도시』에서 작은 규모는 신나고 강렬하고 따뜻한 도시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즉 좁은 거리와 작은 공간에서는 주변의 근거리에 있는 건물과 세밀한 것들, 그리고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많고 건물과 사람들의 활동이 풍부하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더 강하게 경험한다.⁴⁴⁾이처럼 작은 스케일은 도시공간에서 시각적으로 친밀한 공간을 형성한다. ‘서울로 7017’의 가로공간은 자동차를 위하여 계획된 기능적인 차로 공간이 원형 화분들과 원형시설물들이 삽입되어 사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머무르고, 앉고, 서고, 바라보고,

42) Jeff Speck,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 마티, 2015, p.244
 43) Juhani Pallasmaa, *Ibid.*, p.61
 44) Jan Gehl, *사람을 위한 도시*, 2014, p.53

대화 할 수 있는 몸의 움직임이 활성화되는 공간을 형성한다.

(3) 과거와 현재의 콘크리트 물성



<그림 16> 콘크리트 물성

제인 제이콥스는 시간의 쉼에 쌓아올린 여러 삶과 그 삶의 역동성을 단순한 거대한 도시계획으로 한 번에 정비하려는 것은 우리도시를 죽이는 일이라고 역설한다. 도시재생은 시간에 대한 존경이고 연속이다. 산업시대의 유물인 콘크리트 덩어리는 더 이상 기능을 상실했지만, 도시의 시대적 유물로, 그들의 보행로로 다시 사용된다. 과거와 현대는 서로 병치되면서 서로의 존재감을 확인시킨다. 모든 물질은 시간 연속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의 사용으로 나타나는 재료의 느낌은 건축의 재료에 시간의 경험이 풍부하게 덧입혀진 상태를 의미하며, 우리 자신의 과거를 감성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우리는 개인적 삶을 초월하는 거대한 역사와 시간의 순간에 참여하게 된다. 즉 모더니즘 시대의 위대한 작품들도 과거와 미래의 시간들을 보존하고 있다. 서울로7017은 힘든 개발시대의 희망과 미래를 담고 있는 위대한 시간의 저장고 인 것이다. 우리 몸이 이 장소를 거닐 때 역사는 우리 몸의 시각적, 촉각적, 후각적 지각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재설정된다. 즉 ‘서울로 7017’의 거대한 콘크리트 물성은 그 위를 걷는 우리 몸의 체험을 통해서 그 과거의 물성을 새롭게 지각되게 한다. 이 보행로를 설계한 위니마스(Winy Maas)는 재생되기 이전에 콘크리트가 가진 물성을 일부러 지워내지 않고, 전체적으로 새롭게 구축된 콘크리트 바닥과 식재화분에 콘크리트 물성을 적용한다. 그래서 보행자들은 발바닥 밑으로 과거와 현재의 콘크리트 물성을 촉지적으로 섬세하게 느끼며, 색다른 신체적 경험을 하게 된다.

(4) 시지각적으로 연속된 시야



<그림 17> 연속적인 경험

고든 컬렌(Gorden Cullen)은 도시를 디자인 할 때 움직이는 사람들을 고려했을 때, 도시공간은 다양성과 흥미로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위계가 없이 수평적인 가로는 일시적으로 보였다가 곧바로 단조로운 모습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지 못한다. 이처럼 우리 몸이 움직일 때 장면과 장면이 차이나 변화를 가져야만 우리의 기억에 인상적인 느낌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보행자가 ‘서울로 7017’의 보행로를 체험하면서, 근경에서는 수목이 지각되고, 원경에서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연속적으로 경험된다. 이러한 지각은 수목의 종류와, 도시원경의 변수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어 낸다.

또한 켈렌은 절대위요와 상대위요를 구별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절대위요는 전적으로 내부지향적이고 정적이며, 자기만의 사적공간을 제공하는 데 반해, 상대위요는 도시환경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쉬운 일련의 장면 혹은 에피소드로 나누어 연속적인 진행감을 준다고 설명한다.⁴⁵⁾ 그래서 위요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느 정도 위요감을 형성하면서 외부로 열린 구조를 가져야 편안함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로 7017’은 콘크리트 원형 오브제와 소규모 건축물이 거리의 적당한 위요감을 형성하고 있다. 보행자들이 가로 보행로를 거닐 때 이러한 무작위로 파편화된 적절한 위요공간에서 체류하면서 외부적으로 열린 도시조망을 즐길 수 있다. 이 장소의 수많은 작은 규모의 위요공간들은 사람들이 흥미로운 시지각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5) 다양한 몸의 움직임들



<그림 18> 다양한 행위를 유도하는 원통디자인

하나의 감각에 의존하는 경험은 자연스러운 지각에 비하면 불안정하고 이질적인 성격의 것이다. 몸 전체를 사용하여 동시적으로 경험해야 자연스러운 지각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지각은 상호작용하는 감각의 세계 위에서 시작할 수 있다.⁴⁶⁾ 즉 이 거리의 보행자들은 시각적으로 수목들을 구경하지만 접근성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만지고 냄새 맡을 수 있다. 더 이상 하나의 감각에 의해 의존하지 않고, 온몸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감각할 수 있다. 이를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한 공간적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행자들은 앉고, 서고, 눕고, 뺨고, 만지고, 기댈 수 있다. 그것은 인간적인 스케일의 공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밀하고 조그만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행동을 유도한다.

건축이론가 팔라즈마는 우리 다리는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발걸음을 측정하고, 손은 난간을 쓰다듬고, 몸 전체는 비스듬하게 그리고 극적으로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⁴⁷⁾하는 공간에 의해서 우리 몸이 반응하는 특성을 이야기한다. 이 고가가로에서 보행자들은 다양하게 열린

몸의 행동을 유도하는 공간에서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능동적인 행위를 만들어 내고 이것은 다른 보행자들에게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다양한 행위는 좋은 광장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오늘날, 사람을 위한 도시는 그 지역의 장소적 가치를 보존하고, 소규모 단위의 ‘장소 만들기’를 지향 한다. 즉 이러한 도시공간은 일상의 도시인들이 하나의 감각이나 지각체계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감각을 활성화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역사적 맥락을 존중한 도시재생은 몸의 다양한 지각체계와 관련성을 가진다.

우선, 우리 몸이 외부세계를 어떻게 지각하며, 감각들을 체화 시켜나가는지, 철학자 메를로-퐁티를 통해서 정의할 수 있다. 그의 철학적 지향성은 제이 제이콥스, 고든 켈렌, 유하니 팔라즈마와 같은 도시이론가들에게도 나타난다. 즉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의 이성적 사유에 반대하면서 인간의 지각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특히 이들은 모더니즘의 추상적인 공간을 거부하며, 그 지역의 장소성이 살아있는 일상의 도시공간을 탐구한다. 이러한 장소는 집단의 체화된 기억이 여러 세대를 걸쳐서 공유된 공간이며, 그래서 이러한 공간에서 사람들의 체화된 지각체계가 활발하게 작동 한다. 이것은 시간의 연속성이라는 의미에서 도시재생의 개념과 교차한다. 특히 모더니즘에서 파생된 구조물이라도, 도시재생의 차원에서는 역사적 기억의 기록장소로 인정될 수 있다.

재생공간은 자연스러운 도시의 시간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러한 재생공간을 체험하면, 여러 감각들을 적극적으로 감각하고 지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몸의 활발한 외적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분석한 사례처럼, 도시의 오래된 물탱크를 개조한 운동주 문학관은 과거의 물의 흔적과 냄새, 그리고 절제된 시각성을 통해 일상에서 익숙하지 않은 다른 몸의 감각을 지각할 수 있다. 또한 폐정수장을 재생한 선유도공원은 수 공간, 오래된 콘크리트와 철재의 흔적을 통해서 강한 현상적 체험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재생된 서울로 7017은 다양한 식재들, 움직임들을 만들어내는 휴먼스케일의 공간, 연속적인 시지각의 관점에서 흥미롭게 도시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점에 근거해서, 재생된 과거의 흔적들이 내포된 도시공간은 일반적인 공간보다 더 적극적인 몸의 지각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각에 관한 건축도시 재생연구는 다른 유희시설의 재생에도 확대 적용하면, 인간에게 좀 더 친밀한 도시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의 후속 연구로 심리

45) Matthew Carmona 외 4인, Ibid, p.262

46) Merleau-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Routledge, 1992, p.203

47) Juhani Pallasmaa, op. cit., p.91

학 관점에서 재생공간을 분석해 본다면 좀 더 객관적인 면을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Merleau-Ponty,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2.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이학사, 2004
3. 박영욱, 필로 아키텍처, 향연, 2009
4. Juhani Pallasmaa, 건축과 감각, 김훈 역, 시공문화사, 2013
5. 조한, 서울, 공간의 기억 기억의 공간, 돌베개, 2013
6. Jane Jacobs, 미국 대도시의 삶과 죽음, 그린비, 2010
7. Matthew Carmona 외 4인, 도시설계 장소 만들기의 여섯 차원, 2009
8. Gordon Cullen, 도시광경(Townscape), 태림문화사, 1992
9. Juhani Pallasmaa, The embodied image, New York, John Wiley & Sons, 2011
10. Ronld M. Binney, Sequence as a Determining Factor of Design, B.D.A University of Florida, 1976
11. Pierre von meiss, 형태로부터 장소로, 2000, spacetime
12. Jeff Speck,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 마티, 2015
13. Jan Gehl, 사람을위한 도시,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 2014
14. 김정후,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 돌베개, 2013
15. 박소영, 현상학을 통한 Visual Sequence, 충북대 석사논문, 2011
16. 박억철, 윤 성원, 도시경관의 조형해석과 디자이너의 직관 개입에 관한 기초 연구_고든컬렌의 이론을 중심으로, 2013
17. 남지현, 현상학적 경험에 근거한 도시 공간 디자인 접근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2002
18. 중앙일보 매거진M 인터뷰, 2016.2
19.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2015

[논문접수 : 2017. 10. 28]
[1차 심사 : 2017. 11. 20]
[2차 심사 : 2017. 12. 04]
[게재확정 : 2017. 12. 26]